한국, 2028년 유엔해양총회 개최지 확정

해양 분야 최대 규모 국제회의…칠레와 공동으로 유치

‘수중 생명’ 주제…해양오염 방지·생태계 복원 등 논의

한국이 2028년 차기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확정됐다.

유엔총회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한국에서 차기 유엔해양총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169표, 반대 2표(미국·아르헨티나)로 채택했다. 기권한 나라는 없었다.

채택된 결의는 해양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담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를 이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엔해양총회를 2028년 6월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차기 회의의 공동 주최국으로 한국과 함께 칠레를 선정했다. 칠레는 한국에서 열리는 본행사 개최에 앞서 2027년 사전 고위급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해양총회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3년마다 열린다. 관례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올해 제3차 회의는 프랑스·코스타리카 공동 개최로 열렸다.

제3차 유엔해양총회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정상급 지도자만 55명 이상 참여했으며, 전체 참가자 수는 약 1만5000명에 달했다.

차기 유엔해양총회는 ‘수중 생명’(Life Below Water)를 주제로 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해양오염방지, 해양생태계 복원, 지속가능어업, 해양보호구역 설정, 국제 해양법 체계 강화 등 다양한 해양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둔 2028년에 개최되는 만큼 2030년 이후 새로운 해양협력의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지난해 4월 칠레와 공동 개최를 합의하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유엔해양총회 개최 의지를 표명했다. 유치가 최종 결정된 이번 유엔 총회에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해 결의안을 설명하는 등 마지막까지 각국의 폭넓은 지지를 끌어냈다는 평가다.

유엔해양총회는 유엔의 공식 국제회의인 만큼 세부 의제와 총회의 구성은 앞으로 개최국인 우리나라와 칠레를 중심으로 유엔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기술, 산업, 정책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자 최고위급 외교의 무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해수부는 9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유엔해양총회를 담당하는 유엔경제사회국(DESA)과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2030년 이후 유엔 차원의 국제 해양협력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기여와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해수부는 기대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국제사회와 함께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쌓아온 책임 있는 기여와 높은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며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해양 분야 국제 논의를 지속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러 군용기 9대,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中 “태평양 서부 전략 순찰”…공군 전투기 출격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9일 오전 동해와 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오늘 오전 10시께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이중 러시아 군용기 4대와 중국 군용기 2대는 중·러 연합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쪽 KADIZ에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쪽 KADIZ를 진입했다”며 “양국 군용기는 대마도(對馬島·쓰시마섬) 인근 상공에서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중·러 군용기는 약 1시간 동안 KADIZ에 진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1년에 1~2회 정도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 훈련을 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오후 6시(중국시간·한국시간 오후 7시)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러 양국 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해 12월 9일 양국은 동해(동중국해)와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제10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조직·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투폴레프(Tu)-96MS와 중국 H-6K 전략폭격기 그룹이 동해(러시아는 일본해로 표기), 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수역 상공을 공동 공중 정찰했다”며 공동 비행이 8시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경로의 특정 단계에서는 외국 전투기가 동행했다”고 언급하면서 “양국 항공기는 국제법 조항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운항했다. 외국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행사는 2025년 군사 협력 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제3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러 양국은 작년 11월 29일에도 군용기 11대를 동원해 한국 동해·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한 바 있다.

당시 중국 국방부는 “일본해(한국 동해) 공역에서 제9차 연합 전략 순찰을 했다”고 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연합뉴스